

홍콩 칼럼산문의 현황과 미래*

金惠俊**

<목 차>

1. 홍콩 칼럼산문의 개념과 그에 대한 관심
2. 홍콩 칼럼산문의 특징과 문학성
3. 홍콩 칼럼산문의 현황
4. 홍콩 칼럼산문의 의의와 미래

1. 홍콩 칼럼산문의 개념과 그에 대한 관심

홍콩신문의 문예면 판짜기는 독특하다. 전체 판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테두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수많은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난을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일정한 난에 지정된 작가(작가들)가 매일 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백 자에서 천 수백 자의 글을 고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작가가 마치 군웅이 할거하듯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규칙적으로 글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칼럼문학이다.

칼럼문학은 1930,4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1970,80년대에 이르러 신문 판매와 광고 유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 장르 면에서 보자면, 시, 소설, 산문 등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에는 소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 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필자의 기존 작업에서 일부 사항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술에서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곳이 없지 않다. 필자의 기존 작업에 대해서는 줄고,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와 <홍콩 반환에 따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를 참고하기 바란다.

** 釜山大 中文科 教授. dodami@pusan.ac.kr

의 연재가 강세였는데,¹⁾ 무협소설, 애정소설 등 이른바 통속문학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酒徒>(劉以鬯), <寺內>(劉以鬯), <我城>(西西), <候鳥>(西西)를 비롯해서 이른바 순문학에 속하는 것들도 게재되었다. 그러다가 차츰 소설보다는 雜文, 雜感, 雜讀, 雜論, 短評, 札記, 隨筆, 小品, 美文 등을 두루 포함하는 산문 특히 그 중에서도 雜文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산문이 주도하고 있다.²⁾ 칼럼문학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있는데다가 근래에 와서는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雜文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상당히 많다. 즉, 단순히 專欄, 方塊, 框框, 報紙專欄, 報章專欄, 副刊專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專欄文章, 專欄文字, 框框文學, 塊塊框框文學, 方塊文章, 專欄小文이나 散文專欄, 專欄雜文, 框框雜文이라는 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문꼬다리'(報屁股), '두부모'(豆腐乾)라는 속칭까지 있을 정도다.³⁾

칼럼문학, 특히 그 중에서도 칼럼산문이 평론가 내지 연구자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홍콩 자체에서만 보자면, 아마도 1970년대에 들어 그것이 문학잡지나 문학서에 발표되는 작품보다도 더 성행하고 호응 받게 되는 등 홍콩문학에서 특출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듯하다. 처음 칼럼산문에 대한 관심은 칼럼산문이 과연 문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표현되었다.⁴⁾ 즉

- 1) 1952년 겨울에 홍콩으로 온 唐人의 말에 따르면, 신문의 입장이나 기풍이 어떻게 간에 또는 조간이든 석간이든 간에 전혀 예외 없이 소설 연재를 중시해서, 적으면 3,4편이요, 많으면 1,20편을 매일 동시에 연재했다고 한다. 秦瘦鷗, <記唐人>, 96쪽 참고.
- 2) 岑逸飛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0년 4월 30일자 《華僑日報》의 '華僑村' 면에는 문예소설이 4개, 통속소설이 5개, 산문이 5개, 그리고 만화가 1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黃維樑이 198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개 신문 부간 고정란의 약 1/4은 소설연재였고 나머지 약 3/4은 각양각색의 칼럼산문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岑逸飛, <五十年來香港報紙副刊的專欄> 및 黃維樑, <香港文學研究> 참고.
- 3) 이 글에서는 칼럼문학이라는 대 범주 하에 칼럼소설, 칼럼산문, 칼럼시 등이 있다고 간주하겠다. 칼럼산문도 꼭 구분하자면 다시 여러 개의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점에 따라 범주 구분이 다양하고 또 각 범주마다 그 경계가 모호한 점이 없지 않은데다가, 칼럼산문의 절대 다수가 단평과 수필의 중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더 이상 세분하지는 않겠다.
- 4) 1988년 5월경에도 한 차례 논쟁이 있었는데, 칼럼산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학이 아니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黃維樑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홍콩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라며 반박했다. 黃維樑, <香港專欄通論> 참고.

칼럼산문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고 문장이 매끄러우면서 다루는 문제가 광범위한데다가 사회적 상황과 광범위하고도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성격 탓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는'(即讀即忘, 即用即棄) 일회성의 글로 간주되어 '패스트푸드문학'(快餐文學), '인스턴트문학'(即棄文學)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⁵⁾ 심지어는 '치통문학'(牙痛文學), '배꼽문학'(肚臍眼文學)이라고 비하하면서 아예 문학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던 것이다.⁶⁾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산문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우수한 작품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는 한편, 전반적으로 그 예술적 수준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좋은 문학'(好文學) 여부에 관한 논란이라든가, 칼럼산문의 문학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온 것들이 그러했다.⁷⁾

이처럼 칼럼산문에 대해 홍콩 문단의 관심이 제고되거나 또는 칼럼산문에 관련된 주요 관심사가 바뀌게 된 데는 홍콩 문단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래 홍콩의 1997년 반환 문제가 표면화한 이후 홍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홍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홍콩문학에 대한 소개와 연구 역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홍콩 자체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여서 홍콩문학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과 더불어 홍콩문학의 의의를 탐구하고 홍콩문학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많은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대륙이나 타이완의 문학과 구별되는 홍콩만의 독특한 현상인 칼럼산문 또는 더 나아가서 칼럼문학을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1980년대 전반 黃維樑이 홍콩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홍콩 칼럼산문에 관해

5) 예컨대, 施建偉 應宇力 汪義生, 《香港文學簡史》 146쪽에서는 "이는 전형적인 홍콩식 '패스트푸드 문화'다"라고 말하고 있다.

6) 阿濃, <香港散文的香港特色> 참고.

7) 예를 들면, 1988년 9월 黃維樑이 칼럼산문 부정론자를 비판하면서 칼럼산문도 문학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자, 郎天은 칼럼산문이 '문학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좋은 문학이나 아니냐'가 중요하다면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칼럼산문의 수준을 개선하자고 제안박한다. 郎天, <面對現實 具體批判：回應黃維樑《香港專欄通論》> 참고.

발표한 일련의 작업들이 비교적 이와 같은 움직임을 잘 대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홍콩 칼럼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칼럼산문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홍콩 칼럼문학의 변천 상황을 포함해서 일부 개설적인 내용도 다루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다. 필자는 비록 오랜 기간 홍콩문학에 관심을 가져왔고 홍콩 거주 경험도 있으며 비교적 정기적으로 홍콩을 방문하고 있기는 하지만, 칼럼산문이라는 이 문학 현상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함으로써 갖게 되는 실제적 감각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 축적된 체험에서 오는 실감 부분은 부득불 홍콩인들의 경험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2. 홍콩 칼럼산문의 특징과 문학성

홍콩 신문에 문예면이 생긴 것은, 소급하자면 王韜가 《循環日報》를 창간한 18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王韜는 뉴스, 경제 분야의 소식을 다룬 '莊部'와 문예면에 해당하는 '諧部'라는 증보면을 두었고, 글을 발표할 때는 글자 수에 일정한 규정을 두었다고 한다.⁸⁾ 이렇게 출발한 홍콩 신문의 문예면에 칼럼문학이 등장한 것은 1930,40년대로, 아직은 많은 사람의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1940년대 《華僑日報》 부간인 '學生園地', '今樂府', '讀者版' 등의 내용과 형식은 지금의 칼럼문학 고정난과 큰 차이가 없었다.⁹⁾ 이후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무협소설, 애정소설을 중심으로 하는 연재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칼럼문학이 독자의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 홍콩의 신문이 칼럼산문을 위주로 하는 혁신을 시도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

8) 劉以鬯, <香港文學的起點> 참고.

9) 岑逸飛, <五十年來香港報紙副刊的專欄> 참고.

다. 칼럼문학, 특히 칼럼산문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은 홍콩의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 상황과 신문 매체의 발달, 동서와 고급을 모두 포용하는 다원적인 문화 분위기, 이윤 추구 위주의 출판 환경에 따른 발표 지면 부족, 급박한 도시적 생활 리듬에 따른 짧은 글 위주의 독서 습관 등 다방면의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칼럼산문의 글자 수는 전체적으로 짧은 편인데, 구체적으로는 시기마다 다소 다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대략 1000자 남짓한 정도로 그것도 때로는 융통성이 있는 편이었다.¹⁰⁾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짧아져서 1980년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500자에서 800자 사이이고 아주 짧은 경우에는 200자에 그치는 수도 있었다.¹¹⁾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2007년 5월 11일자 《星島日報》와 《蘋果日報》의 칼럼산문 총 30개를 조사해 본 바로는, 1000자에 이르는 것도 2개 있었지만 대개 600-700자였고, 그 중 짧은 것은 300자가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글자 수가 줄어든 것은, 홍콩의 생활 리듬이 갈수록 빨라져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자 더 많은 사안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정된 지면 속에서 편수를 늘임으로써 내용과 스타일 면에서 독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진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가지 면에서 편집자나 신문사에 효율적이다. 즉, 편집자는 원고 검토라든가 판짜기에 참여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덜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사가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¹²⁾ 칼럼산문은 이런 면에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상업적 도시인 홍콩의 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10) 也斯(梁秉鈞)는 1968년 여름부터 칼럼산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 그가 '문예단상'이라는 제목 하에 매주 세 차례 기고하던 《香港時報》 부간은 매일 판짜기를 해서 자수에는 그리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고 한다. 也斯, <公衆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참고.

11) 1982년 黃維樑의 조사에 따른 숫자다. 1990년 阿濃의 조사에 따르면 긴 것은 7,8백자이고 짧은 것은 3, 4백자였다고 한다. 각각 黃維樑, <香港文學研究> 및 阿濃, <香港散文的香港特色> 참고.

12) 黃維樑, <香港文學的發展> 참고.

문예면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문학적성이 적은 것들 예컨대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은 따로 취급했지만, 근자로 올수록 다루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그에 대한 분류는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王劍叢은 세상 만사, 국제 정세,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문학 예술, 기담 괴론, 초목 층어, 음식 남녀 등 칼럼산문에는 없는 게 없다면, 이를 정론성, 서정성, 지식성, 취미성, 정보성, 서비스성 등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¹³⁾ 또 글쓰기 방식이나 스타일에 따라 阿濃은 전통파, 재도파, 사회파, 온정파, 청신파, 첨단파, 신사파, 녹색파, 독서파, 여행파 등으로 분류하는가 하면,¹⁴⁾ 《博益月刊》은 화려파, 회고파, 주부파, 서생파, 애국파, 유머파, 정숙파(文靜派), 발언파(風騷派), 서양파, 몽상파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⁵⁾ 한 마디로 말해서 소재면에서도 그렇고 스타일 면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간의 역사적 궤적을 염두에 둔다면, 칼럼산문이 늘 동일한 형태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문학적성이 강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된 편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시사나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다수를 점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특히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이른바 지식성, 정보성 문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한 사람이 이것저것 자유롭게 다루는 칼럼산문도 여전히 있지만, 경제, 정치, 예술, 의학, 교육, 투자, 이민에서부터 심지어 여피(yuppie), 오디오, 촬영, 꽃기르기, 개기르기 따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칼럼산문이 나타났다.¹⁶⁾ 물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전의 칼럼산문은 장기간에 걸쳐 주로 사회적 사안이나 개인의 일상사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다룬데다가 심지어 급조, 남작의 현상까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점차 무언가

13) 王劍叢, 《香港文學史》, 401쪽.

14) 阿濃, <香港散文的香港特色>, 187-188쪽.

15) 《博益月刊》, 1988년 5월 第9期, 劉登翰 主編, 《香港文學史》, 653쪽에서 재인용.

16) 也斯, <公眾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209쪽. 1980년대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신문에 게재된 칼럼산문을 모아 출간하는 것이 크게 유행했는데, 당시 이 방면에서 대표적이었던 博益出版社가 펴낸 문고본 칼럼산문집의 대부분도 이처럼 지식성, 정보성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博益出版社에서 출간한 칼럼산문집의 제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黃子程, <百花齊放：八九十年代香港雜文面貌> 참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침, 기본적으로 각 분야의 실용 인재 배양에 중점을 두는 홍콩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인구 과밀의 현대적 대도시 특유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서, 갈수록 실리성, 경제성을 더욱 중시하게 된 홍콩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사용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체적으로 표준어 즉 國語(普通話)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지에 게재되는 작품들에 비해서는 粵語를 섞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흔한 편이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문언문의 어구까지 포함된 이른바 ‘三及第’도 없지 않으며, 이와는 별도로 중간 중간 영어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 사실 언어 사용의 방식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粵語를 섞어 쓰거나 ‘三及第’를 사용하는 데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논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이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드러내주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절한 표현 방식을 찾지 못해서라거나 또는 단순히 粵語 사용자가 대부분인 독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설령 독자의 대부분이 粵語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독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칼럼산문이 나중 책으로 출간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홍콩문학이 홍콩 자체에서 감상되거나 소비되는데 머물지 않고 좀 더 큰 범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표준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은 아니다. 지방적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표준어로 대체했을 경우 의미나 어감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불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粵語를 혼용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이 점에서는 ‘三及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가 ‘三及第’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 면에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본 바로는,¹⁷⁾ 칼럼산문의 사회성이나 현실성

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 편협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문학 작품의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삶의 새로운 감각과 신선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면에서 그런 방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

칼럼산문은, 이상의 여러 가지 점과 그 대체적인 글쓰기의 방식을 종합해서 본다면, 전통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략 시사성, 정론성을 띤 단평과 문학성을 갖춘 수필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칼럼산문의 문체적 특징에 관해서는 陳德錦이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요약한 공통점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¹⁸⁾ (1)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어조로 독자와 경험을 교류한다. (2) 전문적 학문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어, 전문 용어, 새로운 어휘, 외국어 번역어의 사용 빈도가 일반적인 소품보다 높다. (3) 제재 면에서 홍콩의 사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홍콩식 언어의 사용 빈도가 높다. (4)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전면적인 귀납 또는 연역적인 추론이 어렵고, 따라서 전반적인 논리적 언어 구사가 비교적 적으며, 짧은 구절이 많고 어법적 생략 상황을 보인다. (5) 논리적인 서술과 논리성이 떨어지는 글귀가 혼용되는 경우가 비교적 일반적이는데, 특히 추론과 정서 표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칼럼산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문학성을 갖추고 있느냐. 또 꼭 그렇게 문학성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홍콩의 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陳炳良은 “비록 어떤 사람은 칼럼산문에서도 사글을 캐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겠는가? 표현 면에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칼럼은 모두 통속적인 언어로 써져 있으니 아속공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회의한다.¹⁹⁾ 이처럼 칼럼산문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나 문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든가, 또는 그것의 문학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반면에 也斯와 같은 사람은, 공중 공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칼럼

17) ‘三及第’에 관해서는 黃仲鳴, 《香港三及第文體流變史》가 참고할 만하다.

18) 陳德錦, <文學的專欄和專欄的文學 - 從文體角度略窺香港專欄的藝術特色> 참고.

19) 陳炳良 編, 《香港當代文學探研》, ii-iii쪽.

산문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가 아니며, 문학적 인 추구는 물론 가능하지만 허다한 비순수적인 것을 용납함으로써 세속과 내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칼럼산문에 너무 커다란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는 식의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²⁰⁾ 그러면서도 이 양자 모두 칼럼산문의 문학적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이며, 특히 칼럼산문을 쓰고 있는 저명 작가들의 예나 그들의 우수한 작품을 예로 들어 칼럼산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볼 때 칼럼산문의 문학적 성격은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닌 듯하다. 만일 사상의 심도, 제재의 범위, 구성의 엄밀성, 표현의 정치성, 스타일의 창조성 등 문학 평가의 관례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칼럼산문의 문학적 성격 내지 수준은 아무래도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²¹⁾ 더군다나 근래에 올수록 홍콩 칼럼산문 작가들의 그런 것에 대한 노력 내지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칼럼산문을 쓰는 작가군들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 1970년대의 칼럼산문 작가들의 경우 대체로 넓은 학식, 풍부한 인생 경험, 예리한 관찰력, 높은 창작 열정, 우수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로 칼럼산문이 전문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비문예 분야의 작가들 및 젊은 작가들이 대거 칼럼산문 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 전 시대에 비해 그들의 문학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또는 그들의 문학적 소양이 다소 부족해졌다고 한다.²²⁾ 즉 사고의 깊이나 감수성의 예민함이라든가 표현력의 뛰어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전보다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

20) 也斯, <公眾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참고.

21) 물론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데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안토니 이스트훅은 문학을 문학 그 자체로서만 평가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한 평가 방식 - 문학 작품을 그 자체로 자족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면서, 모든 가능한 의미를 찾고, 기표와 기의 및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제 상상들에 주의하고, 의미나 상상들이 통일성에 기여하는가 여부를 따지는 방식 - 을 제인 톰킨즈의 말을 빌어 '모더니즘적 읽기'라고 부르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안토니 이스트훅,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13-35쪽 참고.

22) 璧華, <香港報刊專欄文章的前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라, 기본적으로 예술로서의 문학 창작에 대한 작가적 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칼럼산문의 문학성이 감소되고 있는 데는 사회 전체의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970년대 후반 중국대륙의 개혁 개방, 1980년 초의 중영 홍콩반환 결정, 1989년 6·4 민주화운동, 1990년대 영국(홍콩총독)과 중국 간의 마찰, 1997년 홍콩반환과 금융위기, 2003년 사스 등, 홍콩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홍콩 사람들이 이러한 시사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²³⁾ 이러한 것들은 워낙 홍콩의 현실과 밀착해있는 데다가 시의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건에 대한 사색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필력보다는 사건 자체의 진진이나 그에 대한 즉각적 반응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작가 역시 이와 연동하여 충분한 사고와 구상을 거치지 않은 직설적인 토로 위주의 글을 써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칼럼산문의 문학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칼럼산문의 문학성이 그리 강하지 않다든가 또는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칼럼산문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즉 그 생산 시스템과도 관계가 있다. 글자 수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신문에 매일 또는 수 일 만에 게재된다는 점, 고료가 막한 상황에서 한 작가가 동시에 여러 개의 난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점,²⁴⁾ 반응이 빠르고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소비적으로 글을 읽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 등은 작자들이 충분히 사고하고 고려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글의 급조나 남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다 보니 대부분의 작가들 심지어는 원래 문학적 글쓰기를 추구하던 작가들조차도 차츰 작품의 문학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23) 黃維樑에 따르면, 홍콩반환 문제가 1980년대의 각종 장르에서 모두 표출되었는데, 특히 칼럼산문은 천 편 만 편이 모두 '1997 정서'를 담았다고 한다. 黃維樑, <香港文學的發展> 참고.

24) 劉以鬯은 동시에 13곳의 신문에 연재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也斯, <公衆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193쪽 참고.

되거나 또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은 칼럼산문의 결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는 칼럼산문이 가진 양면성 중 한 면일 뿐으로 다른 한 면에서 보자면 칼럼산문이야말로 순문학과 통속문학이 상호 교류하고 융합하는 분야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진지하고 수준 높은 많은 작가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나름의 창작 개성을 유지한 채 우수한 작품을 써내고 있으며, 또 바로 그러한 작품을 문학 애호가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이 감상 내지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에서는 통상적인 글쓰기에 그치는 많은 작가들도, 물론 여기에는 문학에 대한 진지한 추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끊임없는 다작을 통해 차츰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也斯는 이 점과 관련하여 “좋은 점은 창작의 훈련으로, 매일 반성하고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 광범위한 독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²⁵⁾며 그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보자면, 급조와 남작 탓에 모든 작품들이 다 우수한 것만은 아니지만, 독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내지는 독자들로부터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중층적이고 의미 있는 사고를 독자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문에 평이하면서도 신선한 표현 방식으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은 곧 아속이 공상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게 되거나 최소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이와 반대의 방향도 있을 수 있다. 독자들이 충분히 친근감을 느끼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물을 접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일깨워주고 이로써 문학이 가진 재미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문학적 감상 방식은 물론이고 예술의 세계에 접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속작가로 알려져 있는 李碧華는 1980년대 칼럼산문에서 바로 이

25) 也斯, <公衆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193쪽.

런 길을 걸었는데, 내용과 사고 면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면모를 유지하면서도, 예리한 필치와 선명한 감성으로 독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²⁶⁾

홍콩의 칼럼산문은 비록 집필자의 수준이나 태도에 따라 문학적인 성취가 각이하기는 하지만 우수한 작품이 적잖을 뿐만 아니라, 주로 미감을 위주로 하는 문학지의 산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현실과의 밀착성을 위주로 하는 산문의 주요 부분을 담당해왔고, 또한 독자와의 상호 접촉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온 홍콩 특유의 일종의 '아속공상'적인 문학 형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홍콩의 칼럼산문은 순문학과 통속문학이 서로 소통하는 홍콩 특유의 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국 대륙과의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속문학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홍콩문학의 입장에서는 이 점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홍콩 칼럼산문의 현황

홍콩의 도시적 상업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홍콩 작가들의 특별한 문학 행위는 중국대륙이나 타이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글쓰기에 대해 정부나 공공 단체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²⁷⁾ 상업적 논리에 의한 고료는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박했다. 이에 따라 글쓰기 자체로 생활이 가능한 작가의 수도 별로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업 작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중노동에 해당하는 글쓰기를 해야 했다.²⁸⁾ 또 수익성을 고려한 출판사들의 기피로 인해 그들의 작품은 문예잡지나 문학서적의 형

26) 也斯, <公眾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205-206쪽 참고.

27) 1994년엔야 비로소 홍콩예술발전국이 설치되어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28) 예컨대 唐人은 "한 동안 나는 매일 1만자 썩 써야 했다. 10년을 계속하면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 홍콩에서는 생활해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집세도 낼 수 없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술회했다. 傅眞, <香港文苑奇才 - 唐人>, 111쪽에서 재인용.

태로서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 신문의 문예면이나 기타 면에 게재되는 형태로 발표되었는데, 그러한 글들은 독자의 호응에 따라 신문 판매 부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면서도 독자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글쓰기가 강제되었다. 그 대표적인 글쓰기가 바로 칼럼산문이었다.

196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칼럼산문은 1970년대 이후 독자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광고 유치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기존의 연재소설을 누르고 문예면의 중심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는 당시 “칼럼산문이 楚辭, 漢樂府, 唐詩, 宋詞, 元曲, 明清小說……처럼 한 시대의 대표적인 문체가 되어 문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할지도 모른다.”²⁹⁾라는 다소 지나친 기대까지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칼럼산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찍이 1982년에 黃維樑이 간략한 통계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비교적 대표적인 13개 신문에는 매일 거의 400개의 칼럼이 게재되는데, 그 중 90개는 소설이고 나머지 310개는 각양각색의 칼럼산문으로, 만일 홍콩의 55개 신문의 것을 모두 합한다면 매일 1000개의 칼럼산문이 게재되는 셈이며, 각종 잡지에 게재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³⁰⁾ 또 1990년에 阿濃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신문의 칼럼산문은 평균적으로 30개 좌우이고 자신이 조사한 신문의 칼럼산문 총수는 약 500개였다고 한다.³¹⁾

이런 상황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산문집 중에서도 칼럼산문을 모아서 펴낸 것이 양적으로도 가장 많고 질적으로도 대단히 우수하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1991년 제1회 香港中文文學雙年獎의 산문분야 심사에 참여했던 璧華에 따르면,³²⁾ 심사 대상이었던 1989-90년에 홍콩에서 출판된 산문집은 모두 51권이었는데, 그 중 3,5백자에서 8백자 전후의 칼럼산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약 80%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상작 역시 칼럼산문을 모아 출판한 산문집 중의 하나인 《解咒的人》(鍾玲玲)이었는데, 수상작에 대해 그는 비교적 완전한 이야

29) 黃南翔, 《當代文藝》第106期, 1974. 9, 10쪽, 黃維樑, <香港文學研究>, 4쪽에서 재인용.

30) 黃維樑, <香港文學研究>, 1-2쪽.

31) 阿濃, <香港散文的香港特色>. 이 글은 원래 《明報》副刊, 1990. 11, 20-26쪽에 게재되었다.

32) 璧華, <我看香港散文>.

기가 있다는 점에서 콩트의 장점과 함축미나 언외미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 장점을 잘 융합하였고, 내용 역시 홍콩인의 생활 현실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칼럼산문이 당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홍콩산문 더 나아가서 홍콩문학을 선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홍콩 반환 직후까지도 이러한 칼럼산문은 숫자상으로는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신문에 매일 출판되는 칼럼은 1000개 이상인데, 이런 칼럼문장 중에서 가장 흡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살상력이 있는 雜文 - 일종의 문예성 정론이다.”³³⁾라는 언급이나, “매일 발행되는 중문신문이 40부 정도고 각 신문마다 칼럼이 평균 20개라면 홍콩 독자가 매일 읽을 수 있는 칼럼의 수는 800개에 달할 것이다.”³⁴⁾라는 추정이 이를 잘 나타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칼럼산문의 숫자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홍콩 반환 전후부터 신문의 칼럼산문에서 문학적 성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³⁵⁾ 필자가 초보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홍콩의 비교적 대표적인 11개 신문의 2006년 1월 21일자 지면에는 평균 14개 남짓한 모두 160개의 칼럼문학이 실렸는데, 평균치로 보았을 때 이는 앞의 추정치보다 1/4 정도 줄어든 수였으며, 특히 그 중에서 문학을 띤 칼럼문학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또 같은 11개 신문의 2007년 5월 11일자 지면에는 평균 11개 남짓한 모두 124개의 칼럼문학이 실렸는데, 비록 꼭 1년 뒤의 같은 날짜 같은 요일이 아니어서 완벽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형적으로는 1년 반 전보다도 줄어든 수치를 보였으며, 그 이전의 추정치보다는 확연히 적은 수치였다.³⁶⁾ 이런 것을 감안

33) 璧華, <過渡時期香港文學題材的演變>, 195쪽.

34) 蔡敦祺 主編, 《香港文學年鑑 1997年》, 755쪽.

35) 陳德錦 역시 문학 산문은 이미 비주류산문이 되어 버렸고, 칼럼산문은 비록 아직 환영받고 있지만, 급속도로 발전한 보고문학, 문화평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陳德錦, <千禧年香港期刊散文綜論> 참고.

36) 가장 최근에 발행된 홍콩연감인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香港 2005》, 298쪽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으로 홍콩의 중문 일간지는 경마소식지 2개를 제외하면 모두 21개이다. 각 신문별 칼럼산문의 수는 아래와 같다. 자료 입수에 도움을 준 三聯書店(香港)의 黎敬嫻님에게 감사한다.

한다면, “신문 부간의 내용이 비교적 단일하면서 정치화하고 있으며, 소수만이 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90% 이상은 모두 정론적 잡문이거나 뉴스의 연장 내지 보충이 되었다. …… 최근의 대부분 신문 칼럼은 무미 건조해져버려 문학적 색채는 논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³⁷⁾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셈이다. 요컨대 필자가 보기에 칼럼산문의 퇴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칼럼산문의 퇴조는 우선 영상문화와 인터넷문화의 성행 등의 요인에 따라 신문의 독자수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³⁸⁾ 즉, 신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각적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방법으로 지면의 많은 부분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채우는 한편 활자의 크기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히 신문에 게재되는 전체 문장의 양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홍콩 반환 문제로 인해 촉발된 홍콩인의 사회 변동에 대한 관심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흡인력이 강한 시사성 문제를 선호하는 한편, 현대적 대도시 홍콩의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하는바 홍콩인들이 비교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십성 이야기를 좋아함으로써,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극성이 적은 문학적 성격의 문장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보이게 되어 후자의 비율이 더욱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2006년 1월 20일자 《蘋果日報》의 경우, 총면수 116면 중에서 문학적성을 띤 면은 겨우 《蘋果副刊》 1면에 불과할 정도였다. 또 2007년 5월 11일자 《星島日報》의 경우, 부동산 등의 면을 제외한 나머지 총면수 92면 중에서 문학적성을 띤 면은 《星島副刊》의 ‘年華’, ‘花

2006년 1월 21일자: 《明報》25, 《成報》8, 《新報》10, 《信報》28, 《大公報》14, 《文匯園》12, 《太陽報》7, 《星島日報》15, 《蘋果日報》12, 《東方日報》14, 《香港經濟日報》15. 2007년 5월 11일자: 《明報》20, 《成報》6, 《新報》9, 《信報》16, 《大公報》8, 《文匯園》11, 《太陽報》6, 《星島日報》17, 《蘋果日報》13, 《東方日報》6, 《香港經濟日報》12.

37) 東瑞, <香港文學書籍和市場需求>.

38) 1970년대 1월 20만부로 한때 판매부수가 가장 많았던 《星島晚報》가 1996년 2만부 전 후로 떨어지더니 결국 12월 17일 폐간되었고, 그 후 유일한 석간인 《新晚報》 역시 1997년 7월 26일에 폐간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星島晚報》의 《大會堂》, 《新晚報》의 《星海》가 폐간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98년 11월 30일 《文匯報》의 《文藝》가 정간되고 문예성이 비교적 강한 《快報》 부간도 정간되는 등 많은 신문의 문예 부간이 폐간 또는 정간되었으며, 《明報》小說版, 《星島日報》星河版은 매일 소설을 실은 바 있지만 지금은 이미 없어져버렸다.

樣' 합계 2면이었다.³⁹⁾

그런데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칼럼산문의 퇴조는 홍콩인의 삶이 그 전과는 달라졌다는 점이 사실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문화대혁명, 6·4민주화운동 등 중국 대륙의 정세 변동이라든가 홍콩반환 문제 등이 직접적으로 홍콩인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사회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칼럼산문이 성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홍콩인의 중국 대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또 중국 대륙이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격동적인 사건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홍콩반환 문제 역시 그것이 막상 현실화되고 나자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비록 일국이체제 하의 특구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홍콩인의 주된 관심이 정치 동향에서부터 경제 동향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고, 그나마도 신문과 같은 문자 매체 뿐만 아니라 티비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칼럼산문이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효과들, 즉 시사적이고 정론적이면서 이면적 사실의 폭로와 같은 것들이 지닌 흡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변화는 이것뿐만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바, 기존의 신문, 잡지, 라디오, 티비 외에도 컴퓨터, 인터넷웹, 이메일, DVD, 핸드폰 등 새로운 첨단 매체들이 가세하여 다원적이고 신속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것이 사회 속 개개인의 미세한 삶의 조건이나 사고와 행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홍콩 역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칼럼산문을 포함해서 문학 작품 전체가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칼럼산문이 가지고 있던 모종의 특장들이 인터넷문화의 보급이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러한 수단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댓글까지 가능한 블로그의 성행이라든가 문자 기능을 가진 핸드폰의 보편적 사용 등이다. 즉 신문이라는 활자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칼럼산문이 가지고 있던 정보성, 취

39) 자료 입수 과정에서 부동산, 경마, 스포츠 면이 유실되었는데, 이들을 합치면 당일 《星島日報》의 총 면수는 100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 또는 심지어 오락성, 소비성이라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불분명한, 엘빈 토플러의 표현으로 비유하자면 소비자생산 활동을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들이 증가하기 시작함으로써, 작가들에 의한 공급과 신문 지면이라는 소통의 장 및 독자들에게 의한 소비라는 칼럼산문의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당연한 일로 이는 우선적으로 칼럼산문의 독자수가 줄어들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칼럼산문의 쓰기와 읽기에 대한 태도 내지는 내용과 수준에까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4. 홍콩 칼럼산문의 의의와 미래

칼럼산문은 지난 수십 년간 홍콩에서 작가도 가장 많고 작품도 가장 많으며, 독자도 가장 많고 영향력도 가장 큰 문학 장르였다. 비록 칼럼산문은 집필자의 수준이나 태도에 따라 문학적인 성취가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우수한 작품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미감을 위주로 하는 문학지 산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현실과의 밀착성을 위주로 하는 산문의 주요 부분을 담당해왔고, 또한 그러한 글쓰기는 더 나아가서 홍콩의 산문은 물론이고 홍콩문학 전체의 창작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글자 수, 고정난 따위를 포함한 외형이라든가 주제, 제재, 기법에서부터 작품을 창작하고 게재하고 읽고 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홍콩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칼럼산문은 홍콩 특유의 문학형태이자 홍콩문학을 대표하는 문학 장르라고 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이에 관해 좀 더 부연해보자. 칼럼산문은 홍콩인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해왔고, 그들에게 문학적 접촉의 범위를 넓혀주었다. 비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과 기법 등의 면에서 대중문학과 순문학이 상호 용

합하고 교류하는 형태였고, 상업적 환경 하에서 지면의 제약을 받고 있던 작가들에게 훌륭한 창작의 장이 되었다. 예술로서의 문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창작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광범위한 독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독자의 반응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일부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칼럼산문은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문학잡지 위주의 비교적 장문의 문예성 산문은 물론이고 문학 창작 전체에 홍콩문학 특유의 성격을 부여해주었다. 예컨대 홍콩문학 전체에 배어있는 생활화라는 특색은 바로 칼럼산문에서 출발한 것으로, 홍콩산문 또는 홍콩문학이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그것과 다른 주요 특색이다. 칼럼산문은 홍콩문학의 여러 장르 속에서도 특히 홍콩문화가 가진 풍부성과 다양성, 동서 문화의 충돌,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시문화의 기민함과 변화 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⁴⁰⁾ 이리하여 칼럼산문은 그 자체로서도 홍콩문학 특유의 현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중국문학 내지 세계문학의 범위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홍콩문학의 독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근거가 되었다. 요컨대 칼럼산문은 최소한 중국대륙문학이나 타이완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홍콩문학 특유의 것으로서, 그 가치는 결코 낮추어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칼럼산문은 장차 어떤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사실은 1990년대 벽두에 벌써 그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璧華는 1992년 12월에 발표한 그의 <香港報刊專欄文章的前途>에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오늘날 칼럼산문이 어떻게 이런 정보와 결합하여 시세를 쫓아가면서도 태의 운명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시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⁴¹⁾ 라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칼럼산문은, 1970년대에 희망에 차서 楚辭 등과 마찬가지로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퇴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곧 도태되고

40) 也斯, <公衆空間中的個人論說：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196쪽.

41) 璧華, <香港報刊專欄文章的前途>, 124쪽.

말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그것은 우선 홍콩 사회 자체가 당분간은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칼럼산문을 포함해서 홍콩문학 역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신문 부간의 편집자라든가 칼럼산문 작가들의 다양한 적응 노력 역시 홀시할 수 없다.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칼럼산문을 게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예컨대 문학애호가나 학생들의 문학 감상, 습작, 훈련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세분화된 형태의 칼럼산문을 시도하는 것이 그렇다. 또 혹시 1989년 6·4민주화운동이나 1997년 홍콩반환처럼 모종의 격동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다시 칼럼산문이 성황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칼럼산문이 다시 중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전술한 것처럼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인 영상문화, 인터넷문화 등의 발전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홍콩사회 자체가 정치적 변동보다는 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 홍콩 사회가 안정화하는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삶의 여유가 더욱 줄어든다는 점, 교육받은 지식인의 수가 확대되고 정보를 획득하기가 점점 수월해짐으로써 프로슈머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 칼럼산문에 불리한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칼럼산문의 변화는, 아마도 홍콩문학이 중국문학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통속문학과 순문학의 상호 접근은 외형적으로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홍콩문학이 은연중에 중국대륙문학과와 상대적인 차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순문학과 통속문학이 서로 소통하는 홍콩문학 특유의 칼럼산문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은 홍콩문학의 독자성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일관되게 홍콩의 문학적 사회적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칼럼산문은, 홍콩문학이 계속하여 중국문학 내에서 중국대륙문학 및 타이완문학과 병립하는 존재로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한 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지표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긴 장래로 볼 때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홍콩 11개 일간지: 《明報》, 《成報》, 《新報》, 《信報》, 《大公報》, 《文匯園》,
《太陽報》, 《星島日報》, 《蘋果日報》, 《東方日報》, 《香港經濟日報》
2006년 1월 21일자 및 2007년 5월 11일자.
- 김혜준, <홍콩 반환에 따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 《중국현대문학》 제39집, 서
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06년 12월.
- 김혜준,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 《중국어문논총》 제25집, 서울: 중국어문연구
회, 2003년 12월.
- 東 瑞, <香港文學書籍和市場需求>, 《作家月刊》(香港) 第25期, 2004.7.
- 郎 天, <面對現實 具體批判: 回應黃維樑《香港專欄通論》>, 盧瑋鑾 編, 《不老的繆思:
中國現當代散文理論》, 香港: 天地圖書, 1993.
- 劉以鬯, <香港文學的起點>, 《暢談香港文學》, 香港: 獲益出版事業有限公司, 2002.
- 璧 華, <過渡時期香港文學題材的演變>,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二屆香港文學節
研討會講稿匯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8.
- 璧 華, <我看香港散文>, 《香港文學論稿》, 香港: 高意設計製作公司, 2001.
- 璧 華, <香港報刊專欄文章的前途>, 《香港文學論稿》, 香港: 高意設計製作公司, 2001.
- 傅 眞, <香港文苑奇才 — 唐人>,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
料中心 1981-24.
- 阿 濃, <香港散文的香港特色>, 盧瑋鑾 編, 《不老的繆思: 中國現當代散文理論》, 香
港: 天地圖書, 1993.
- 也 斯, <公眾空間中的個人論說: 談香港專欄的局限與可能>, 盧瑋鑾 編, 《不老的繆思:
中國現當代散文理論》, 香港: 天地圖書, 1993.
- 岑逸飛, <五十年來香港報紙副刊的專欄>, 市政局公共圖書館 編, 《香港文學節研討會講稿
匯編 第一屆》, 香港: 市政局公共圖書館, 1997.
- 秦瘦鷗, <記唐人>,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1-24.
- 黃維樑, <香港文學研究>,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 陳德錦, <文學的專欄和專欄的文學 — 從文體角度略窺香港專欄的藝術特色>,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二屆香港文學節研討會講稿匯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8.
- 陳德錦, <千禧年香港期刊散文綜論>, 陶然 主編, 《香港文學》總第219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3. 3.
- 黃維樑, <香港文學的發展>, 《香港文學再探》, 香港: 香江出版社, 1996.
- 黃維樑, <香港專欄通論>, 盧瑋鑾 編, 《不老的繆思: 中國現當代散文理論》, 香港: 天地圖書, 1993.
- 黃子程, <百花齊放: 八九十年代香港雜文面貌>, 黃維樑 主編, 《活潑紛繁的香港文學: 1997年香港文學國際研討會論文集》(上),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0.
- 안토니 이스트롭,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서울: 현대미술사, 1994.
-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香港 2005》, 香港: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2005.
- 蔡敦祺 主編, 《香港文學年鑑 1997年》, 香港: 香港文學年鑑學會出版, 1999.
- 劉登翰 主編, 《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 王劍叢, 《香港文學史》,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1995.
- 施建偉 應宇力 汪義生, 《香港文學簡史》,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1999.
- 陳炳良 編, 《香港當代文學探研》, 香港: 三聯書店, 1992.
- 黃仲鳴, 《香港三及第文體流變史》, 香港: 香港作家協會, 2002.

ABSTRACT

For the last few decades, Hong Kong column writing has been one of the kind in literary category that has numerous writers, abundant works, huge readers, and a enormous influence. According to the usual point of view, Hong Kong column writing is a kind of hybrid between short commentary upon current events and essay with literariness. On the average, it seems that it doesn't have strong literariness. However there are many good pieces and remarkable works, it has always closed adhesion to real life, and it has also influenced the whole of Hong Kong Literature in the end.

The number of letters in column writing consisted of about 1,000 letters in the early times, 500 to 800 letters or 200 letters in shortest since the 1980s.

If we look into the stories and subjects published in literary supplement(副刊) of newspapers, we can figure out that almost every issues in everyday life are in there these days. When it comes to mention the languages, generally it uses Mandarin and sometimes includes Cantonese and English words and phrases. What is more, it uses 'Sanjidi'(三及第) which is composed of Mandarin, Cantonese and classical Chinese(文言).

From the 1980s to 1997, the return of Hong Kong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quality and quantity, Hong Kong column writing had been leading Hong Kong literary essay or Hong Kong literature itself. But now it seems that the situation has changed a lot from that time. Not only the very number of column writing has relatively been reduced but also the literariness of the column writing has significantly been diminished. Based on my own investigation, now the amount of column writing decreases more than one and a forth compared to the time, in 1997. Especially, among them, there are few, just about 20% that proved to have literariness. In short, there is a downward tendency in column writing.

It seems still too early to diagnose that Hong Kong column writing will be curtailed soon. However, I can not find a sign that could resuscitate column writing. On the contrary, there are more and more unfavorable factors for Hong Kong column writing :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media culture will have a increasingly important influence as time goes on ; people in Hong Kong is much more interested in economic trends than the political movements ; people no more receive the bless of composure and enjoy their lives according to competitive but stabilized society at the same time ; What is called 'prosumer' will be spread because the number of educated people increased a lot and it is very easy to get information, and so on.

Likewise, the changes to be seen from column writing will probably have a certain amount of influence in Hong Kong literature and its status in Chinese literature. That is, the downward tendency of Hong Kong column writing, which is a way of the connection between serious and popular literature, may have a

bad influence on the uniqueness of Hong Kong literature in Chinese literature.

Key Words : column writing, literary supplement(副刊), Hong Kong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